

대한상의 브리프

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제47호 2017년 1월 2일



편집자주

지난 12월, 문재인정부 첫 번째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동력 확충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기업 지원 시책과 조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기업 시책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혁신창업·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된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각종 비과세·감면이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지원책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어떻게
지원
받나요?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어디에서
신청
하나요?

온라인

-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

-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조 9,708 억원으로, 정부는 지원대상을 3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제지원제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됐다.

먼저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에 비례해 2년(대기업은 1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작년까지는 기업이 고용을 많이 늘리더라도 설비투자를 수반해야만 1년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올해부터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연간 최대 1,100만원을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작년에는 전환인원 1인당 500~7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올해에는 700만원~1천만원씩 깎아준다. 다만 정규직 전환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소된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3~10년 이내 종전 기업이 재고용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해 임금의 10%를 2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했는데, 올해부터는 중견기업도 수혜대상이며, 공제율도 15~30%로 인상됐다.

혁신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확대

혁신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먼저 기술력을 갖춘 창업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올해 출범한다. 정부가 3년간 3조원을 투입하고, 벤처캐피털업체들이 민간자금 7조원을 끌어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해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도 신설되거나 확대했다. 우선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1년 만에 재도입했다.



[고용증대세제 도입]

(단위: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일자리 질 향상에 대한 지원]

(단위: 만원)

1인당 공제액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	1,000	70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임금의 30%	임금의 15%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이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올해부터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남기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5년 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3년간 75%, 2년간 50%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사내벤처 분사에 대해서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해 올해부터는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 구간이 신설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종전 22%에서 25%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 기업은 2015년 법인소득 기준 77개이며, 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 금액은 연 2조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추산한 시점은 2015년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18년 추가 법인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명목세율이 높아지더라도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뺀 실제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로 미국(23.3%), 영국(21.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R&D 지원 등 비과세·감면 축소

대기업을 중심으로 R&D 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은 R&D 비용에 대해 작년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2%로 1%p 줄었다.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었다.

작년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들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5%만큼 법인세를 깎아줬지만, 올해부터는 1~3%만 깎아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투자액의 7~10%)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5,500억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법인세 부담을 경쟁적으로 낮춰감에 따라 국내 기업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노동현안의 조속한 입법,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1월 2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3.0	3.0	3.0	3.0	3.0
세계	3.2	3.6	3.7	3.7	3.7	3.6
미국	1.5	2.2	2.3	1.9	2.5	2.1
중국	6.7	6.8	6.5	6.3	6.6	6.4
일본	1.0	1.5	0.7	0.8	1.2	1.0
EU	2.0	2.3	2.1	1.8	2.1	1.9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61	1,130	1,134	1,131	1,132	1,132	1,105
원/엔	934	1,068	1,019	1,009	1,030	1,022	1,002	979
원/위안	180.1	174.4	166.1	167.5	169.2	172.3	171.1	166.8
원/유로	1,255	1,283	1,269	1,306	1,337	1,348	1,331	1,296
유가(Dubai)	32.2	53.8	46.5	50.4	49.3	55.2	58.3	60.8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9	3.0	1.7	2.0	2.5	7.4	-2.4	1.7
소매판매	4.1	4.3	1.1	3.6	0.9	8.4	-0.2	6.5
설비투자	6.9	-1.3	18.6	24.9	12.4	24.9	-3.8	6.3
수출	-8.0	-5.9	13.4	19.5	17.3	35.0	7.1	9.6
수입	-16.9	-6.9	19.8	15.5	15.3	21.7	7.9	12.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